

노년기 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 만족도에 대한 연구

서미아* · 이선희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광주여전 의상디자인과 교수

A Study of Clothing Design Preference & Clothing Satisfaction for Older Women

Mi-A Suh* and Sun-Hee Lee

*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Design, Kwangju Women's Junior College

目 次

Abstract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선행연구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의복 디자인 선호도	2. 의복 디자인 선호도
2. 의복 만족도	3. 시판되는 의류제품에 대한 만족도
III. 연구방법 및 절차	V. 요약 및 결론
1. 연구문제	참고문헌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Abstract

A clothing design preference & clothing satisfactions(a general satisfaction, fitness) was studied for women 55 years and older.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ings.

In view of a clothing design preference,

1) Styles of outdoor clothes for spring-fall:

① Two-pieces ② Blouse(Sweater) & Slacks ③ Blouse(Sweater) & Skirts

2) Colors of clothes for seasons :

(Spring - Pink, Light yellow, beige), (Summer - Light blue, Blue, Light green),
(Fall - Brown, Red purple, Beige), (Winter - Black, Brown, Gray)

- 3) Fabric prints : ① Unicolor without print ② Geometric print ③ Traditional print
4) Kinds of textiles : ① Easy Laundriability ② A style of dressing ③ Uncrumple

In view of clothing satisfactions for ready made clothes, they have unsatisfactory trends as following orders,

- 1) Considering a general satisfaction : ① Clothing which go with oneself ② Fitness
③ Matching with other clothes
2) Considering fitness for clothes : ① Sleeve length ② Shouder width ③ Length in
Blouce(Sweater) & Jacket, ① Length ② Waist ③ Girth of hip(under abdomen) in
slacks(skirts)

I.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도의 경제성장은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달을 가능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년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의 연령구조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노년층의 사회활동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제 사회활동에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발표된 노인복에 관한 논문들은 초기에는 대부분이 노년층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연구의 폭이 넓어져 노인의 의복태도 및 행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의복에 대한 만족·불만족도, 선호도, 구매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노년층 여성의 의복실태나 만족도 및 디자인 선호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의 대부분의 의복은 젊은층의 체형과 기호에 의거하여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복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및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인들도 그들의 특수한 입장에 따라 심미적 요소뿐 아니라 활동성과 적합성도 함께 갖춘 의복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만족시킬 권리가 있는 소비자이므로, 노인들의 의복에 대한 불만족과 선호하는 의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제기획원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노인에 대한 여자노인의 비율이 1980년에 60세 이상이 59.8%, 65세 이상이 62.7%, 1990년에는 각각 60.7%, 62.4%로 여자노인의 수가 남자노인의 수보다 월등히 많음을 볼 수 있다(통계청, 1992). 그러므로 인구 고령화 라는 현상과 더불어 여자노인인구의 증가라는 문제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이 의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점과 여성 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의 수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에서 노년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내 거주 5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시판되는 의류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노년기 여성의 의복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의복을 생산하는 의류업체에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여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의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을 주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의복 디자인 선호도

의복 디자인은 시각예술의 한 분야로서, 그 의복이 인간에게 입혀졌을 때 그 입혀진 인간을 보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조화시키고,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의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유송옥, 1975). 노인의 일반적인 신체 변화에 대하여 Ryan(1966)은 노년기의 외모 변화가 신체적 매력을 감소 혹은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것은 노년기의 외적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젊은 시절보다 의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은주(1987)는 한국 노년기 여성의 외출시 양장, 한복의 선호에 대해 양장의 착용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며, 그는 양장을 즐겨 입는 이유로 간편하고 활동하기 용이한 점을 들고 투피스를 외출복으로 애용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박준경(1986)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의복색과 기호색을 조사, 분석한 결과 기호색은 Blue-purple, Blue, Yellow의 순이었으며, 연령별로 50대는 Blue, 60대는 Bluepurple, 70대 Green이다. 조은주(1988)는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선호 의복색은 붉은색 계통, 갈색계통, 푸른색계통의 순으로 보고했다.

이미강 외1인(1985)의 색채와 문양에 대한 연구에서 20대는 줄무늬와 무늬없는 직물, 30대는 점무늬와 전통무늬, 40대는 점무늬와 꽃무늬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성인 여성은 무늬없는 직물을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은주(1988)는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복무늬 선호에 대해서는 무늬가 없는 단색이나 꽃무늬를 좋아하며, 의복소재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질감의 옷감을 좋아하였다.

2. 의복 만족도

의복 만족도는 의복의 스타일, 색상, 질감, 문양, 바느질, 관리, 가격, 활동성, 상황에의 적합성, 유행성, 맞춤새, 유행, 개성 및 착용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Mclean, 1978; Ryan, 1978; Shannon, 1961).

조은주(1988)는 60세 이상의 여성 193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기성복 구매후 불만을 나타냈으며, 의복구입시 불만족요인은 사이즈, 색, 무늬, 디자인순이었다. 김영애(1991)의 60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체로 기성복에 만족하고 있지 않았으며, 불만족요인을 살펴보면 가격, 색상, 모양, 맞춤새, 질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許甲遷(1993)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복착용의 문제에 있어서 젊은이 저항이어서 불편하다고 했으며, 고령자 기성복점을 원했다. 기성복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사이즈, 가격, 색상, 소재의 순이었다. Tate(1961)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한 면담조사 결과, 의복구매시에 가장 고려하는 점은 안락감과 몸에 맞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노인들의 의생활에 있어서 불만족한 요인으로 여러가지가 있으나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사이즈, 맞춤새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을 알 수 있다. Blair(Ryan, 19

66)는 45세부터 65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대부분의 여성들이 체중의 증가 및 허리가 굽어짐에 의하여 의복이 몸에 잘 맞지 않게 되는 부위가 허리, 윗팔, 가슴, 어깨 등의 순서라고 보고하고 있다. 김영애(1991)는 신체충실지수가 높은 노인일수록 전반적인 맞음새, 가슴부위, 허리선의 위치, 엉덩이 부위, 스커트 혹은 바지길이가 몸에 맞는 정도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였다. Shim 등(1993)은 5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한 카탈로그 구매에 의한 의복의 맞음새 연구에서 전체적인 만족 수준은 낮았으며, 특히 블라우스/스웨터 길이, 바지길이, 스커트/드레스 길이, 자켓 길이와 관련하여 낮았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노년기여성의 의복디자인(의복의 스타일, 색채, 문양, 소재) 선호도를 알아보고, 연령과 체형에 따라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노년기여성의 시판되는 의류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적인 만족도와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하고,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1994년 11월 부터 1995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먼저 2차에 걸쳐 예비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설문지로 본 조사를 착수하였는데, 조사는 서울시내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8개의 노인대학과 노인정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자기작성 설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총 600부를 배부하여 514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418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근거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 만족도: 외출할 때 즐겨입는 의복의 종류, 계절별로 좋아하는 의복의 색, 좋아하는 문양, 좋아하는 옷감을 묻는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선호하는 디자인에 2개씩 답하도록 하였다.

2) 의복 만족도: 시중에 나와있는 의복디자인 및 관련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고, 의복 적합도는 기성복(블라우스/스웨터, 자켓, 바지, 스커트)을 구입할 때 신체에 잘 맞지 않은 부위에 대해 모두 답하도록 하였다.

3) 소비자의 일반적 사항: 소비자의 연령, 몸무게, 체중, 학력, 직업 유무, 현재 동거인 상태, 수입원, 총수입과 용돈의 범위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방법은 SPSS/PC를 사용하여 빈도와 퍼센트, 요인분석, 상관관계, 일원분산분석, T-Test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노인의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5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연령	55~64세 이하	229	54.8
	65세 이상	189	45.2
	계	418	100.0
가족생활형태	남편과 자녀와 산다.	164	39.2
	남편없이 자녀와 산다.	116	27.8
	남편과 들만 산다.	71	17.0
	혼자 산다.	39	9.3
	기타	12	2.9
	무응	16	3.8
	계	418	100.0
학력	국민학교 졸업이하	125	29.9
	고등학교 졸업이하	214	51.2
	전문대학교 이상	62	14.8
	무응	17	4.1
	계	418	100.0
직업 유무	있다	57	13.6
	없다	334	79.9
	무응	27	6.5
	계	418	100.0
수입원천	남편이나 본인의 수입	153	32.2
	남편이나 본인의 연금	39	8.2
	임대료·이자 등의 자산소득	81	17.1
	자녀의 수입	103	21.7
	자녀용돈	93	19.6
	계*	469	100.0
월평균 총수입	50만원 미만	56	13.4
	50만~100만원	63	15.1
	101만~200만원	153	36.6

<표 1> 계속

		N	%
월평균 총수입	201만~300만원	51	12.2
	300만원 이상	41	9.8
	무응	54	13.1
	계	418	100.0
용돈	10만원 미만	98	23.4
	11만~20만원	120	28.7
	21만~40만원	107	25.6
	40만원 이상	62	14.8
	무응	31	7.4
	계	418	100.0
체형	마른체형 (1.20미만)	24	5.7
	표준체형 (1.20~1.50미만)	178	42.6
	뚱뚱한 체형 (1.50이상)	167	40.0
	무응	49	11.7
	계	418	100.0

*는 복수응답한 결과임

2. 의복디자인 선호도

1) 형태

<표 2> 의복스타일의 선호도(봄·가을용)
N=720*

중요 순위	의복스타일	N(%)
1	투피스정장	208(28.9)
2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177(24.6)
3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121(16.8)
4	잠바와 바지	86(11.9)
5	원피스	82(11.4)
6	한복	20(2.8)
7	잠바와 스커트	17(2.4)
8	기타	9(1.3)

노년여성들이 선호하는 의복의 형태를 착용스타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출시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의 선호도(봄·가을용)

노년 여성들이 외출시 가장 즐겨입는 의복의 종류를 알기 위해, 봄, 가을용으로 방문, 쇼핑 또는 출근시 즐겨입는 의복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나타난 바와 같이 즐겨입는 의복으로 '투피스 정장'이 전체의 28.9%(N=208)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의 경우가 각각 24.6%(N=177), 16.8%(N=121)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계절

별로는 가을에 투피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김일본, 1984; 조은주, 1987)와 일치하며 원피스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연구들(김일본, 1984; 조은주, 1987)과 차이를 보였다. 겨울에만 애용되던 바지(정향숙, 1993)가 본 연구에서는 외출복임에도 불구하고 스커트보다 선호되고 있는 것은 노년층 여성들의 의복 선호 스타일이 많이 변화했음을 알려준다.

(2) 연령과 체형에 따른 의복스타일의 선호도

노년 여성들의 연령과 체형에 따른 외출복 선호도에 대하여 중요순서를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과 체형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색 채

(1) 계절별 의복색 선호도

노년여성들의 계절별 선호 의복색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봄의 선호 의복색이 분홍(15.8%), 미색(10.6%), 베이지(9.4%)의 순으로 밝고 환한 색 중심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배정자(1976)에 의하면 30대의 경우는 pink계, orange계가 같은 1위를 나타내고, 40대의 경우에는 pink계, yellow green계의 순이며, 50대의 경우에는 yellow green계, beige계의 순으로 나타나 봄의 의복색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분홍, 노랑 등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50대의 경우만이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연령과 체형에 따른 의복스타일의 선호도

N=720*

연령 및 체형	중요순위	의복 스타일 선호도	N(%)
연령	64세 이하(385)	① 투피스정장 ②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127(33.0) 89(23.1) 58(15.1)
	65세 이상(335)	①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② 투피스정장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88(26.3) 81(24.2) 63(18.8)
체형	마른 체형(39)	①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② 투피스정장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12(30.8) 9(23.1) 7(18.0)
	표준체형(308)	① 투피스정장 ②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85(27.6) 73(23.7) 48(15.6)
	뚱뚱한 체형(296)	① 투피스정장 ②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③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	98(33.1) 71(24.0) 47(15.9)

* 복수 응답한 것임.

<표 4> 계절별 의복색 선호도

N=720*

계절	순위	의복색	N(%)	계절	순위	의복색	N(%)
봄(652)	1	분홍색	103(15.8)	여름(633)	1	흰 색	214(33.8)
	2	미 색	69(10.6)		2	하늘색	60(9.5)
	3	베이지색	61(9.4)		3	파랑색	55(8.7)
	4	노랑색	57(8.7)		4	미 색	54(8.5)
	5	연두색	55(8.4)		5	옥 색	40(6.3)
	6	흰 색	43(6.6)		6	베이지색	37(5.8)
	7	보라색	41(6.3)		7	녹 색	31(4.9)
	8	하늘색	31(4.8)		8	회 색	22(3.5)
	9	주황색	28(4.3)		9	남 색	18(2.8)
	10	녹 색	27(4.1)		10	검정색	16(2.5)
	11	빨강색	26(4.0)		11	청록색	15(2.4)
	12	옥 색	25(3.8)		12	연두색	14(2.2)
	13	파랑색	17(2.6)		13	분홍색	11(1.7)
	14	청록색	14(2.1)		14	보라색	9(1.4)
	14	회 색	14(2.1)		14	빨강색	9(1.4)
	16	녹두색	13(2.0)		14	밤 색	9(1.4)
	17	검정색	9(1.4)		17	녹두색	7(1.1)
	18	자주색	8(1.2)		18	주황색	5(0.8)
	19	밤 색	7(1.1)		19	노랑색	5(0.8)
	20	남 색	4(0.6)		20	자주색	2(0.3)
		계	652(100.0)			계	633(100.0)
가을(627)	1	밤 색	145(23.1)	겨울(638)	1	검정색	255(40.0)
	2	자주색	70(11.2)		2	밤 색	94(14.7)
	3	베이지색	69(11.0)		3	회 색	71(11.1)
	4	보라색	48(7.7)		4	자주색	54(8.5)
	5	검정색	46(7.3)		5	빨강색	46(7.2)
	6	회 색	33(5.3)		6	남 색	18(2.8)
	7	남 색	30(4.8)		7	보라색	17(2.7)
	8	빨강색	29(4.6)		7	베이지색	17(2.7)
	9	주황색	22(3.5)		9	흰 색	15(2.4)
	10	미 색	19(3.0)		10	옥 색	8(1.3)
	11	하늘색	18(2.9)		11	청록색	7(1.1)
	12	흰 색	16(2.6)		12	주황색	6(0.9)
	13	녹 색	15(2.4)		12	하늘색	6(0.9)
	14	분홍색	13(2.1)		14	분홍색	5(0.8)
	15	옥 색	12(1.9)		14	녹 색	5(0.8)

<표 4> 계속

계절	순위	의복색	N(%)	계절	순위	의복색	N(%)
	15	녹두색	12(1.9)		16	노랑색	4(0.6)
	17	파랑색	9(1.4)		16	파랑색	4(0.6)
	17	청록색	9(1.4)		16	녹두색	4(0.6)
	19	노랑색	9(1.4)		19	미 색	1(0.2)
	20	연두색	3(0.5)		19	연두색	1(0.2)
		계	627(100.0)			계	638(100.0)

* 복수 응답한 합계임.

여름의 선호 의복색은 흰색 33.8%(N=214), 하늘색(9.5%), 파랑(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정자(1976)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구별없이 light blue계, white계, yellow green 계의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며, White계(29.8%), Blue계(22.1%), Bluepurple 계(19.1%)가 색채가 주는 시원함 때문에 실제로 높은 착용기호율을 보인다는 박준경(198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여준다.

가을의 선호 의복색은 밤색(23.1%), 자주(11.2%), 베이지(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구별없이 가을의 선호 의복색은 brown계, beige계로 나타난 배정자(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겨울의 선호 의복색은 검정(40.0%), 밤색(14.7%), 회색(1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검정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겨울의 선호 의복색 역시 연령구분없이 black계, brown계, dark brown계로 나타난 배정자(1976)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검정의 경우는 일치하나 자주, 빨강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계절별 선호 의복색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색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과 체형에 따른 계절별 의복색 선호도

연령에 따른 계절별 선호 의복색을 나타내면 <표 5>와 같으며, 연령과 체형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계절별로 표준체형과 뚱뚱한 체형이 보다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마른 체형의 경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보통 마른 체형을 지향하고 표준체형들도 자신은 뚱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뚱뚱한 체형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소재

노년기 여성의 소재에 대한 선호도를 문양에 대한 선호도와 옷감에 대한 선호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양 선호도

노년여성들의 문양 선호도를 알기 위해, 선호하는 문양을 2가지로 응답하게 한 결과를 중요 순서대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양없는 단색의 옷'이 전체의 41.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하학적 문양'과 '전통문양'이 각각 27.8%와 9.5%를 차지하였

<표 5> 연령과 체형에 따른 계절별 의복색 선호도

N=720*

계절		연령 및 체형	순위 색상	N(%)	
봄	연령	64세 이하(374)	① 분홍 ② 미색 ③ 노랑	50(13.4) 42(11.2) 38(10.2)	
		65세 이상(278)	① 분홍 ② 미색 ③ 베이지	53(19.1) 27(9.7) 26(9.4)	
	체형	마른 체형(38)	① 분홍 ① 흰색 ③ 미색	7(18.4) 7(18.4) 5(13.2)	
		표준 체형(295)	① 분홍 ② 베이지 ③ 연두	47(15.9) 31(10.5) 25(8.5)	
		뚱뚱한 체형(274)	① 분홍 ② 미색 ③ 연두	41(15.0) 35(12.8) 24(8.7)	
	여름	연령	64세 이하(368)	① 흰색 ② 파랑 ③ 미색	121(32.9) 42(11.4) 29(7.9)
			65세 이상(265)	① 흰색 ② 하늘색 ③ 미색	93(35.1) 32(12.1) 25(9.4)
		체형	마른 체형(37)	① 흰색 ② 미색 ③ 하늘색	15(40.5) 4(10.8) 4(10.8)
표준 체형(280)			① 흰색 ② 하늘색 ③ 파랑	89(31.8) 29(10.4) 25(8.9)	
뚱뚱한 체형(263)			① 흰색 ② 하늘색 ③ 옥색 파랑	91(34.6) 27(10.3) 23(8.7) 23(8.7)	
가을		연령	64세 이하(363)	① 밤색 ② 베이지 ③ 자주	84(23.1) 44(12.1) 40(11.0)
			65세 이상(264)	① 밤색	61(23.1)

<표 5> 계속

계절		연령 및 체형	순위 색상	N(%)
	체형		② 자주	30(11.4)
			③ 베이지	25(9.5)
		다른 체형(37)	① 밤색	8(21.6)
			② 검정	7(18.9)
		③ 베이지	5(13.5)	
	표준 체형(276)	① 밤색	67(24.3)	
		② 베이지	36(13.0)	
	③ 자주	34(12.3)		
	뚱뚱한 체형(263)	① 밤색	64(24.3)	
		② 자주	27(10.3)	
		③ 베이지	23(8.7)	
겨울	연령	64세 이하(375)	① 검정	158(42.1)
			② 밤색	52(13.9)
			③ 회색	43(11.5)
		65세 이상(263)	① 검정	97(36.9)
		② 밤색	42(16.0)	
		③ 회색	28(10.6)	
	체형	다른 체형(39)	① 검정	15(38.5)
			② 자주	5(12.8)
			③ 밤색	5(12.8)
		표준 체형(287)	① 검정	118(41.1)
		② 밤색	42(14.6)	
		③ 회색	34(11.8)	
뚱뚱한 체형(264)	① 검정	103(39.0)		
	② 밤색	41(15.5)		
	③ 회색	33(12.5)		

* 복수 응답한 합계임.

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이 전반적으로 무늬없는 옷을 선호한다는 여러 연구(김일분, 1984; 박정순외 2인, 1985; 이미강외 1인, 1985; 조은주, 1987; 이부련외 1인, 198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다음으로 꽃무늬를 주로 선호한다는 결과(박정순외 2인, 1985; 조은주, 1987; 이부련 외 1인, 1989; 정향숙, 1993)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 연령과 체형에 따른 문양 선호도

연령에 따른 문양 선호도를 알기 위해, 좋아하는 문양 2가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를 <표 7>

<표 6> 문양선호도 N=720*

중요 순위	문양 선호도	N(%)
1	문양없는 단색의 옷	286(41.0)
2	기하학적 문양(줄무늬, 체크무늬 등)	194(27.8)
3	전통문양	66(9.5)
4	점문양	61(8.8)
5	사실적 문양(돌물무늬, 식물무늬 등)	54(7.7)
6	추상문양	36(5.2)

* 복수응답의 결과임.

에 나타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기혼여성 과 미혼여성 모두 무늬 없는 옷을 가장 선호 하며, 다음으로 기하학적인 무늬를 선호한 다는 최승희(1990)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체형에 따른 문양 선호도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세 체형 모두 1, 2순위는 각 각 문양없는 단색의 옷과 기하학적 문양으 로 나타났으며, 3순위만이 표준체형에서는 점문양, 뚱뚱한 체형에서는 전통문양으로 나타났다. 체형과 직물문양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서미아(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3) 옷감 선호도

노년여성의 옷감 선호도를 알기 위해 2가지 응답을 하게 한 결과를 중요순서대로 나타내면

<표 7> 연령과 체형에 따른 문양 선호도

N=720*

연령 및 체형	순위	문양 선호도	N(%)	
연령	64세 이하(385)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51(39.2)	
		② 기하학적 문양	107(27.8)	
		③ 전통문양	36(9.4)	
	65세 이상(312)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35(43.3)	
		② 기하학적 문양	87(27.9)	
		③ 전통문양	30(9.6)	
체형	마른 체형(40)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6(40.0)	
		② 기하학적 문양	14(35.0)	
		③ 전통문양	3(7.5)	
		사실적 문양	3(7.5)	
		점문양	3(7.5)	
			3(7.5)	
	표준 체형(305)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21(40.0)	
		② 기하학적 문양	84(27.5)	
		③ 전통문양	28(9.2)	
		뚱뚱한 체형(285)	① 문양없는 단색의 옷	120(42.1)
			② 기하학적 문양	77(27.0)
			③ 전통문양	29(10.2)

* 복수 응답한 것임.

<표 8>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좋아하는 옷감으로 '세탁이 간편한 옷감'(27.5%), '옷

<표 8> 옷감 선호도

N=720*

중요순위	옷감선호도	N(%)
1	세탁이 간편한 옷감	221(27.5)
2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115(14.3)
3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106(13.2)
4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감	97(12.0)
5	가벼운 옷감	63(7.8)
6	다림질이 필요없는 옷감	60(7.5)
7	땀흡수가 잘 되는 옷감	54(6.7)
8	앉았다가 일어나도 번들거리지 않는 옷감	40(5.0)
9	더러움이 잘 타지 않는 옷감	23(2.9)
10	촉감이 좋은 옷감	16(2.0)
11	빨리 마르는 옷감	10(1.2)
12	기 타	0(0.0)
	계	805(100.0)

* 복수 응답의 결과임.

<표 9> 연령과 체형에 따른 옷감 선호도

연령 및 체형	순위	옷감선호도	N(%)
연 령	64세 이하(448)*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111(24.8)
		②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73(16.3)
		③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감	63(14.1)
65세 이상(357)*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110(30.8)	
	②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50(14.0)	
	③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42(11.8)	
체 형	마른 체형(48)*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12(25.0)
		②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감	7(14.6)
		③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7(14.6)
표준 체형(344)*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96(27.9)	
	②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54(15.7)	
	③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감	39(11.3)	
뚱뚱한 체형(334)*	① 세탁이 간편한 옷감	84(25.1)	
	② 옷의 땀시가 잘 나는 옷감	51(15.3)	
	③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45(13.5)	

* 복수 응답한 것임.

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14.3%),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13.2%)의 순으로 각각 27.5, 14.3, 13.2%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드러운 질감의 옷감을 좋아한다는 조은주(1988)의 연구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용적 가치가 만족도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Wall 외 1인(1979)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 연령과 체형에 따른 옷감선호도

노년여성의 연령에 따른 옷감선호도를 알기위해 좋아하는 옷감을 두가지씩 응답하게 한 결과를 중요순서대로 나타내면 <표 9>와 같으며, 연령과 체형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시판되는 의류제품에 대한 만족도

시판되는 의류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와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에서 전체적인 경향과 배경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

의복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만족도를 측정하는 15문항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울림, 맞음새, 조화성의 용이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2.832, 2.841, 2.937의 순으로 불만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착용성, 색채,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3.534, 3.559, 3.634의 순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이즈와 디자인에서 불만족하다는 여러 연구결과(조은주, 1988; 김영애, 1991; 許甲暹, 1993; 이부련, 1990; 林泰子, 1990)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체형의 연구를 통한 맞음새의 개선,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면서 갖고 있는 옷과 지속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는 면 등을 고려하여 의복이 제작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의 요인분석

적합도를 제외한 의복의 일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15문항을 특성별로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요인추출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고 varimax회전을 시도하였다. 추출된 세계 요인은 전체분산의 60.2%라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 요인 1은 41.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각 요인은 그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내용을 조합하여 공통되고 대표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요인 1은 사회성 및 의도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요인 2는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요인 3은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였으며 이것은 <표 11>으로 제시하였다.

<표 10>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적합도 제외)

문항 내용	평균
- 어울림 :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기가 쉽다.	2.832
- 상황에의 적합성 : 용도 및 상황에 적합한 의복을 찾기가 쉽다.	3.015
- 조화성의 용이 : 내가 갖고 있는 옷과 조화되는 옷을 쉽게 고를 수 있다.	2.937
- 맞춤새 : 나에게 맞춤새가 좋은 의복이 많다.	2.841
- 활동성 : 활동하기에 편한 의복을 고르기가 쉽다.	3.377
- 외모 적합성 : 품위있게 보이는 의복이 많다.	3.345
- 색채 : 옷의 색채가 다양하다.	3.559
- 문양 : 여러가지 다양한 문양의 의복이 많다.	3.222
- 소재 : 마음에 드는 다양한 재질의 의복이 많다.	3.238
- 디자인 : 여러가지 다양한 디자인의 의복이 많다.	3.289
- 유행 : 유행성이 반영되는 의복이 많다.	3.355
- 관리 : 옷의 세탁 및 관리가 편리한 의복이 많다.	3.634
- 가격 : 적당한 가격의 의복이 많다.	3.107
- 착용성 : 입고 벗기에 편리한 의복이 많다.	3.534
- 바느질 : 바느질이 매우 꼼꼼하고 잘 되어 있다.	3.395

<표 11>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적합도 제외)의 요인분석

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평균
<u>요인 1: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u>		6.2100	41.4	3.06
-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기가 쉽다.	.8132			
- 용도 및 상황에 적합한 의복을 찾기가 쉽다.	.7457			
- 내가 갖고 있는 옷과 조화되는 옷을 쉽게 고를 수 있다.	.7440			
- 나에게 맞춤새가 좋은 의복이 많다.	.6602			
- 활동하기에 편한 의복을 고르기가 쉽다.	.6382			
- 품위있게 보이는 의복이 많다.	.5217			
<u>요인 2: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u>		1.6757	52.6	3.33
- 옷의 색채가 다양하다.	.8291			
- 여러가지 다양한 문양의 의복이 많다.	.7821			
- 마음에 드는 다양한 재질의 의복이 많다.	.7119			
- 여러가지 다양한 디자인의 의복이 많다.	.6708			
- 유행성이 반영되는 의복이 많다.	.6201			
<u>요인 3: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u>		1.1514	60.2	3.42
- 옷의 세탁 및 관리가 편리한 의복이 많다.	.7729			
- 적당한 가격의 의복이 많다.	.7490			
- 입고 벗기에 편리한 의복이 많다.	.6299			
- 바느질이 매우 꼼꼼하고 잘 되어 있다.	.5968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3.42,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가 3.33,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가 3.06의 순으로 나타나 디자인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본인에게 어울리거나, 맞춤새 및 상황에 적합한 의복을 찾기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으며 마음에 드는 문양과 디자인이 없어 노인의 특설코너를 희망한다는 林泰子(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노인복에 대한 불만족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배경변인과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와의 관계

시판 노년기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가 배경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았다 <표 12>. 연령과 시판 노년기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만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배경변인과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와의 관계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연령	64세 이하	2.99	3.30	3.30
	65세 이상	3.08	3.43	3.52
	t	-.74	-1.35	-2.71**
체형	마른 체형	2.81	3.30	3.35
	표준 체형	3.04	3.40	3.43
	뚱뚱한 체형	3.04	3.27	3.38
	F	.60	.85	.20
학력	국민학교 이하	2.93	3.40	3.29
	고등학교 이하	3.18	3.44	3.48
	전문대학교 이상	2.81	3.00	3.32
	F	4.82**	5.13**	2.30
직업	있다	3.21	3.46	3.33
	없다	3.01	3.33	3.40
	t	1.44	.90	-.60
용돈	50만원 이하	2.92	3.36	3.28
	51~100만원	3.10	3.37	3.45
	101~200만원	3.01	3.44	3.43
	201만원이상	3.18	3.29	3.42
	F	1.20	0.32	0.91

* P<0.05, **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함.

학력과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는 학력을 국민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학력과 의복 만족도에서는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와 디자인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이 3.18로 가장 만족한 경향을 보였으며, 초급대 이상이 2.81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이 3.4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국민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이 3.40, 전문대 이상이 3.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전문대 이상의 집단이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와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장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고학력 노년층 소비자들의 이러한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인복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의복의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

의복의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전체적인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와 연령과 체형에 따른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의복의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

시판 기성복의 치수 적합에 대하여 잘 맞지 않는 모든 부위를 응답케 한 결과를 <표 13>에 나타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잘 맞지 않는 부위에 대하여 의복별로 살펴보면, '블라우스/스웨터'에서 잘 맞지 않는 부위는 '소매길이'(45.0%), '어깨부위'(28.2%), '블라우스/스웨터 길이'(17.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켓에서는 '소매길이(34.0%)', '어깨부위(28.0%)', '자켓 길이'(18.9%)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소매길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상희(1994)의 연구에서도 수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이 소매길이라고 하였다.

바지에서 잘 맞지 않는 부위는 바지길이(35.4%), 허리둘레(34.0%), 엉덩이둘레(21.1%)의 순이며, 스커트에서는 스커트길이(26.6%), 허리둘레(24.9%), 아랫배부위(18.2%)의 순으로 나타나 하의간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바지는 엉덩이둘레, 스커트는 아랫배 부위로 나타나 같은 하의임에도 불구하고 옷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부위에 문제가 지적된다. 이는 신장의 감소와 둘레항목의 증가로 인한 체형의 변화가 옷의 구조에 따라 의복설계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의에서 가장 맞지 않는 부분으로 허리둘레(38.6%), 옷길이(35.8%)의 순이라는 김일분(1984)의 연구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 연령과 체형에 따른 의복의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

연령에 따른 의복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14>, 블라우스/스웨터와 자켓에서 두 집단 간 유사한 경향이나 64세 이하의 집단에서는 상의의 길이가, 65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가슴둘레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인다. 바지와 스커트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맞지 않는 부위중 64세 이하의 집단에서는 길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65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허리둘레가 가장 잘 맞지 않는 곳을 보

<표 13> 의복의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

의복종류	중요순위	부 위	N(%)
블라우스/스웨터(418)*	1	소매길이	188(45.0)
	2	어깨부위	118(28.2)
	3	블라우스 길이	75(17.9)
	4	목부위	66(15.8)
	5	가슴둘레	62(14.8)
	6	진동부위	53(12.7)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67(16.0)
자켓(418)*	1	소매길이	142(34.0)
	2	어깨부위	117(28.0)
	3	자켓길이	79(18.9)
	4	가슴둘레	63(15.1)
	5	진동부위	49(11.7)
	6	목부위	42(10.0)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73(17.5)
바지(418)*	1	바지길이	148(35.4)
	2	허리둘레	142(34.0)
	3	엉덩이둘레	88(21.1)
	4	아랫배부위	64(15.3)
	5	밑위길이	61(14.6)
	6	바지통	57(13.6)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51(12.2)
스커트(418)*	1	스커트길이	111(26.6)
	2	허리둘레	104(24.9)
	3	아랫배부위	76(18.2)
	4	엉덩이둘레	68(16.3)
	5	스커트폭	51(12.2)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48(11.5)

* 복수 응답의 결과임.

여준다. 이러한 이유로는 연령에 따라 체형상의 특징이 나른 때문으로 생각되며 의복 설계시 연령에 따라 치수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체형과 의복의 적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14>와 같으며, 블라우스에서 마 른 체형은 소매길이, 어깨부위, 목부위, 가슴부위, 진동부위의 순이며, 표준체형은 소매길이, 어깨부위, 블라우스 길이의 순으로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가 22.5%로 세 체형중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다. 비만체형은 소매길이, 어깨부위, 블라우스 길이의 순으로 모든 부위에 잘 맞 는다는 8.4%로 세 체형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표준체형과 뚱뚱한 체형이 비슷한 경

<표 14> 연령과 체형에 따른 의복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

의복종류	연령 및 체형		순위 부위	N(%)	
블라우스 /스웨터	연령	64세 이하(229)	① 소매길이 ② 어깨부위 ③ 블라우스 길이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113(49.3) 76(33.2) 44(19.2) 32(14.0)	
		65세 이상(189)	① 소매길이 ② 어깨부위 ③ 가슴둘레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75(39.7) 42(22.2) 35(18.5) 35(18.5)	
	체형	마른 체형(24)	① 소매길이 ② 어깨부위 ③ 목부위 가슴둘레 진동부위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8(33.3) 7(29.2) 4(16.7) 4(16.7) 4(16.7) 5(20.8)	
		표준 체형(178)	① 소매길이 ② 어깨부위 ③ 블라우스 길이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76(42.7) 50(28.1) 30(16.9) 40(22.5)	
		뚱뚱한 체형(167)	① 소매길이 ② 어깨부위 ③ 블라우스 길이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83(49.7) 51(30.5) 35(21.0) 14(8.4)	
		자켓	연령	64세 이하(229)	① 소매길이 ② 어깨부위 ③ 자켓길이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65세 이상(189)	① 소매길이 ② 어깨부위 ③ 가슴둘레 자켓길이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59(31.2) 43(22.8) 30(15.9) 30(15.9) 39(20.6)
		체형	마른 체형(24)	① 소매길이 진동둘레 ③ 어깨부위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6(25.0) 6(25.0) 5(20.8) 6(25.0)

<표 14> 계속

의복종류	연령 및 체형		순위 부위	N(%)
자켓	체형	표준 체형(178)	① 소매길이 ② 어깨부위 ③ 자켓길이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59(33.1) 47(26.4) 28(15.7) 39(21.9)
		뚱뚱한 체형(167)	① 소매길이 ② 어깨부위 ③ 자켓길이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66(39.5) 55(32.9) 39(23.4) 19(11.4)
바지	연령	64세 이하(229)	① 바지길이 ② 허리둘레 ③ 엉덩이둘레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91(39.7) 71(31.0) 59(25.8) 24(10.5)
		65세 이상(189)	① 허리둘레 ② 바지길이 ③ 엉덩이둘레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71(37.6) 57(30.2) 29(15.3) 27(14.3)
	체형	마른 체형(24)	① 허리둘레 ② 바지길이 ③ 엉덩이둘레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12(50.0) 8(33.3) 6(25.0) 4(16.7)
		표준 체형(178)	① 바지길이 ② 허리둘레 ③ 엉덩이둘레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58(32.6) 53(29.8) 32(18.0) 29(16.3)
		뚱뚱한 체형(167)	① 바지길이 ② 엉덩이둘레 ③ 아랫배부위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62(37.1) 41(24.6) 36(21.6) 11(6.6)
	스커트	연령	64세 이하(229)	① 스커트길이 ② 아랫배부위 ③ 허리둘레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65세 이상(189)			① 허리둘레 ② 스커트길이 ③ 엉덩이둘레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54(28.6) 45(23.8) 23(12.2) 23(12.2)

<표 14> 계속

의복종류	연령 및 체형		순위 부위	N(%)
스커트	체형	마른 체형(24)	① 허리둘레 ② 스커트길이 ③ 스커트폭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10(41.7) 8(33.3) 3(12.5) 2(8.3)
		표준 체형(178)	① 스커트길이 ② 허리둘레 ③ 엉덩이둘레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50(28.1) 39(21.9) 34(19.1) 28(15.7)
		뚱뚱한 체형(167)	① 아랫배 주위 ② 허리둘레 스커트길이 -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	49(29.3) 46(27.5) 46(27.5) 12(7.2)

향을 보이고 있다.

자켓에서 마른체형은 소매길이, 가슴둘레, 어깨부위의 순이며,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가 25.0%로 세 체형중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다. 표준체형은 소매길이, 어깨부위, 자켓길이의 불만족을 보이며, 뚱뚱한 체형은 소매길이, 어깨부위, 자켓길이의 순이다. 모든 부위에 잘 맞는다는 11.4%로 세 체형중 가장 낮은 만족을 보였다.

바지에서 잘 맞지 않는 부위는 마른 체형은 허리둘레, 바지길이, 엉덩이둘레의 순이며, 표준체형은 바지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비만체형은 허리둘레, 바지길이, 엉덩이 둘레의 순이며, 모든 부위에 잘 맞는다가 6.6%로 세 체형중 가장 낮다. 또한, 마른 체형과 뚱뚱한 체형 모두가 허리둘레가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준형을 기준으로 의복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스커트에서 잘 맞지 않는 부위는 마른 체형은 허리둘레,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의 순으로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표준체형은 스커트 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이고 모든 부위가 잘 맞는다는 15.7%로 세 체형중 가장 높다. 비만체형은 아랫배 부위, 허리둘레, 스커트 길이의 순을 보였으며, 바지의 엉덩이둘레가 불만족한 것과는 달리 스커트에서는 아랫배부위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과 관련하여 길이에 불만이 높은 것은 여러 체형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아예 길게 하여 잘 맞지 않을 경우 줄여입을 수 있도록 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여성의 의복디자인(의복의 스타일, 색채, 문양, 소재) 선호도를 알아보고, 노년기 여성의 시판되는 의류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적인 만족도와 치수 적함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하고, 의복 디자인 선호도와 의복 만족도가 배경변인(연령, 직업 유무, 학력, 체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복 디자인 선호도

- ① 노년기 여성들이 봄, 가을용으로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은 투피스 정장, 블라우스(스웨터)와 바지, 블라우스(스웨터)와 스커트의 순이었다.
- ② 계절별로 선호하는 의복색을 살펴보면, 봄에는 분홍, 미색, 베이지, 여름에는 하늘색, 파랑, 연두, 가을에는 밤색, 자주, 베이지, 겨울에는 검정, 밤색, 회색으로 계절의 구분이 명확하여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색과 일치함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계절별로 표준체형과 뚱뚱한 체형이 보다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마른 체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보통 마른 체형을 지향하고 표준체형들도 자신은 뚱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뚱뚱한 체형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 ③ 노년기 여성이 선호하는 문양을 살펴보면, 문양없는 단색의 옷, 기하학적 문양, 전통문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 ④ 선호하는 옷감의 종류로는 세탁이 간편한 옷감,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의 순으로 실용성 및 편리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2. 의복 만족도

의복 만족도를 시판되는 의류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와 의복의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 ① 시판되는 의류제품의 일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문항 중에서 어울림, 맞춤새, 조화성의 용이의 순으로 불만족한 경향을 보이고, 착용성, 색채, 관리의 순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 ② 시판 노년층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요인분석결과 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제 1요인은 의복의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제 2요인은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제 3요인은 의복의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되어 의복의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복의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③ 의복의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성복의 종류별로 몸에 잘 맞지 않는 부위가 블라우스(스웨터)와 자켓에서는 소매길이, 어깨부위, 상의의 길이 순이며, 바지에서는 바지의 길이와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스커트에서는 스커트의 길이와 허리둘레, 아랫배 부위의 순으로 하의간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바지는 엉덩이둘레, 스커트는 아랫배 부위로 나타나 옷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부위에 문제가 지적된다.

연령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켓과 블라우스/스웨터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64세 이하의 집단에서는 상의의 길이가 65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가슴둘레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인다. 바지와 스커트에서는 잘 맞지 않는 부위중 64세 이하 집단에서는 길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65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허리둘레가 가장 맞지 않는 곳을 보여줌에 의복설계시 연령에 따른 구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체형에 따른 차이에서는 블라우스에서는 표준체형이 가장 만족했으며, 뚱뚱한 체형이 가장

불만족했다. 바지에서는 표준체형과 뚱뚱한 체형 모두가 바지길이가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과 관련하여 길이에 불만이 높은 것은 여러 체형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아예 길게 하여 잘 맞지 않을 경우 줄여 입을 수 있도록 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의복의 디자인 선호도와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는 점차 노년기 의생활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차적으로 노년기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노년기 여성의복의 사회심리학적 측면, 구성 및 디자인 측면, 소비자 행동 측면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김영애,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2. 김일분, 노년층 여성의 의생활 의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3. 박정순, 이정순, 김금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I), 부산대학교 가정학과 연구보고, 11, 1985.
4. 박준경, 우리나라 노년층의 의복색 기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5. 배정자, 한국여성의 복지 기호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6. 서미아, 의복의 무늬 기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3, 한양대 생활과학연구소, 207-226, 1985.
7.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확사, 1975.
8. 이미강, 이인자,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9(1), 9-16, 1985.
9. 이부련, 김순분, 대구, 경북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 5, 1990.
10. 정향숙, 실버계층 여성의류상품 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1. 조은주, 노년기 여성의 의복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2. 최승희, 성인여성의 자아실현과 의복디자인 선호도간의 상관관계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1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5권-인구이동 & 8권-고령자, 1992.
14. Mclean, F. P., *The Process of Age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he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1978.
15.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16. Shannon, L. E., *Consumer satisfaction with cotton fabrics in relation to selected physical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1961.

17. Shim, S. and Bickle, M. C., Women 55 years and older as catalog shoppers: Satisfaction with apparel fit and catalog attribut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4), 53-64, 1993.
18. Tate, M. T. and Glisson, O., *Family cloth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7.
19. Wall, M., Dicky, L. E. & Talarzy, K. W., Profiling consumer communication of complaints about clothing performa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6), 368-378, 1979.
20. 林泰子., 高齢者の衣生活の問題. 織消誌, 31(2), 561-566, 1990.
21. 許甲暹., 韓國老年期女性の衣生活實態調査研究. 衣生活研究, 20(4), 48-53, 1993.